

한국 첫 우주인들의 한가위 인사

“우주로 가는 꿈 함께 꾸어요”

고산·이소연씨 광주일보 e-메일 인터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절을 앞두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고산(30), 이소연(28)씨가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해왔다.

고산, 이소연씨는 광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보통사람들은 꿈조차 꾸 보지 못한 우주인, 그것은 오직 꿈과 희망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3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더라도 희망을 향한 열정과 가슴 속 한 칸에 묻어 놓았던 꿈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꿈 없이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작은 진리가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전해온 우주인들의 추석메시지다.

한국최초 우주인이라는 행운을 잡은 고산씨는 인터뷰에서 “꿈을 갖고 그것을 이뤄 나가는 일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돈’ 보다는 ‘꿈’을 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다”면서 “가슴 속의 꿈을 소중히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예비 우주인으로 선정된 광주출신 이소연씨도 인터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일은 어렵지만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소중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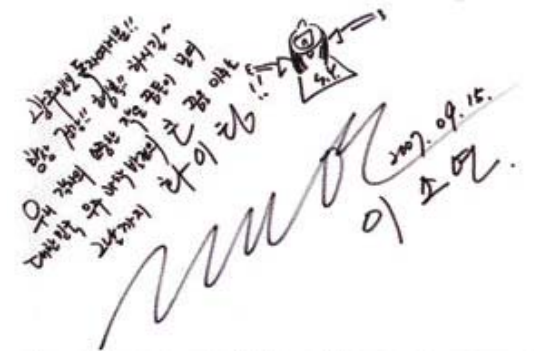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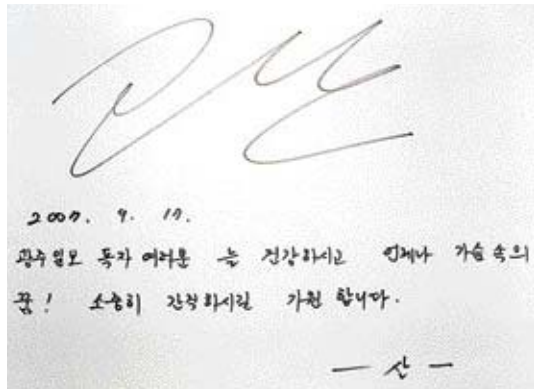
고산, 이소연씨는 또 “언제나 가슴속의 꿈! 소중히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고산), “우리 각자의 소중한 작은 꿈들이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 우주과학발전의 큰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화이팅!”(이소연)이라고 쓰인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를 친필 서명과 함께 보냈다.

이제 추석이다. 우주인들의 메시지처럼 직장생활에 스트레스 받고, 힘겨운 살림살이로 쪼들리면서도 힘든 귀성 전장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유년의 꿈을 찾자는 데 있다. 물어봤던, 잃어버렸던 꿈을 한가위 총명한 보름달을 바라보며 다시 그려보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산씨

이소연씨



4,600만 민족 대이동 시작

최대 9일 연휴...귀성길 원활할 듯

22일~26일까지 5일동안 이어지는 추석(25일)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과 휴일을 포

함, 연휴기간이 5일이나 된 데다 다음 주 휴일까지 내리 쉬는 직장도 많아 최대 9일까지 휴가가 이어지는 그야말로 ‘황금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올 추석 연휴기간동안 전국적으로 4천600만여명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긴 연휴 탓에 귀성길은 교통량이 분산돼 비교적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귀경길에는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예년의 귀경 대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고했다.

본격 귀성이 시작된 21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논산 분기점~여산휴게소,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 구간 등 고속도로와 국도가 지역별로 지·정체 됐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와 동광주톨게이트는 이날 오후 6시를 넘기면서 차량들이 급속히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정체를 빚었다. 또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전남 지역 간선도로 주변도 밤 늦은 시각까지 귀성 차량들로 북적였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1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를 거쳐 광주를 찾은 귀성 차량은 4만 8천 대였으며, 서울~광주 소요시간은 대부분 4시간 전후였으나 이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0분 이상이 더 소요됐다. 도로공사는 23일과 24일에 귀성 차량들이 몰려 하루 27만대 가량의 승용차가 광주·전남지역으로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는 추석 전날인 24일 오전 귀성길이 가장 혼잡해 승용차 기준 서울~광주가 최대 7시간, 서울~목포는 7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연휴가 끝나는 26일 오후에는 귀경 차량이 집중되면서 광주~서울은 8시간 20분, 목포~서울은 8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孫, 선거캠프 해체

경선전엔 복귀...민심대장정 올라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조직동원 양상으로 흐르는 데 항의하며 선거 활동을 중단했던 손태규 후보가 집거 사흘만인 21일 경선전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손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해체와 여의도 선거사무실 폐쇄를 선언한 데 이어 부산지역 TV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손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복귀를 선언했다. 손 후보는 오후에 예정된 부산지역 TV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국민경선위원회가 마련한 공식 일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경선을 치러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손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경선후보를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는 쪽을 택하면서도 민심대장정과 같은 독자 행보를 통해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손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치를 내걸고 막 출범한 신당에서 구태정치와 그대로 반복되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이제 다시 깨어나 신당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이며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대선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경선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경선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조직선거 동원선거의 유혹을 뿌리부터 없애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체전 성화 채화

오는 10월 8일 광주에서 개막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를 환하게 밝힐 성화가 21일 전국체전의 공식채화지인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됐다. 채화된 성화는 이날 오후 6시에 광주시청 로비에 마련된 성화보존대로 옮겨져 체전 기간 동안 성화대를 밝히게 된다. /강화도 마니산=위직량기자 jrwi@

추석 연휴 광주·전남 날씨

22(土)	23(日)	24(月)	25(火)	26(水)
구름 많음 19/27	차차 흐려짐 18/29	흐린후 맑 18/28	구름 조금 17/28	구름 많음 17/27

즐거운 한가위 맞으십시오
추석 특집·영화·TV 9~24면
쓱 뽑아 따로 보관해 놓고 보세요
24·25·26일 신문 쉽니다...kwangju.co.kr 서비스는 계속

우일학원 장학 20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ac.kr
전남과학대학

빛나는 미용품
LANEIGE
한가위 맞이